

박인비 LPGA 명예의 전당 입회 '영광'

박세리 이후 9년만에...역대 최연소 기록

지난 10년 동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종합무진하며 수많은 금자탑을 쌓아올린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골프 역사에 한 획을 긋는다. 박인비는 이를 뒤 미국 시애틀 인근 사할리 골프장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KPGA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다.

2007년 박세리 이후 9년 만에 탄생하는 LPGA 투어 명예의 전당 가입자다. LPGA 투어 명예의 전당 입회자는 1960년 투어 창립 후 66년 동안 24명에 불과하다.

27세 10개월 28일 만에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는 박인비는 박세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대 최연소(29세 8개월 10일) 기록을 갈아치운다.

2006년 퓨처스 투어를 거쳐 2007년 프로에 데뷔한 박인비는 2008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LPGA 투어 US오픈에 최연소로 정상에 오르며 혜성같이 떠올랐다. LPGA 투어와 메이저 대회에서의 생애 첫 우승 트로피이자 한국인으로는 5번째 메이저 타이틀이었다.

2012년 7월 에비앙 마스터스 제패 전까지 LPGA 투어 우승과 연을 맺지 못했던 박인비는 2013년 2월 혼다 LPGA 타이랜드 정상 등극을 시작으로 역사 쓰기에 속도를 붙였다.

그해 박인비는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 LPGA 챔피언십을 휩쓸며 한 시즌 동안 3개의 메이저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박인비는 2014년에도 LPGA 챔피언십을 통해 또 하나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추가하는 등 3승을 더했다.

박인비는 지난해 8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된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4개 메이저대회 석권)을 달성했다.

US여자오픈(2008·2013년), LPGA 챔피언십(2013·2014·2015년),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2013년) 타이틀을 갖고 있던 박인비는 브리티시오픈으로 부족한 한 자리를 채웠다.

투어 통산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총 17승을 거둔 박인비는 올해의 선수상 1회, 최저타수상을 2회 수상했다.

지난해 최저타수상(베이트로피)을 수상하면서 명예의 전당 입회에 필요한 27포인트를 모두 채웠다.

명예의 전당 헌액 조건은 LPGA 투어 활동 10년 이상 메이저 대회 우승 베이트로피(최저타수상)·올해의 선수 중 최소 1개 이상, 27포인트(메이저 2점·LPGA 우승 1점·베이트로피·올해의 선수 1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박인비는 오는 10일 개막하는 시즌 2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1라운드만 마치고는 아후 기권이나 컷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의 전당 자격을 모두 만족한다.

10개 대회에 출전해야 1년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박인비는 이를 뒤 미국 시애틀 인근 사할리 골프장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KPGA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다.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 12일 개최

새만금 방조제를 달리는 '제2회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가 오는 12일 펼쳐진다.

전북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비영도와 관망대, 아미도, 가력도를 도는 코스로 진행된다.

이번 경기는 50km 경쟁, 21km 경쟁(청·장년부), 21km 동호인 단체부, 11km 초등부 경쟁, 11km 비경쟁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대회에서는 인라인 경기와 별도로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방조제와 고군산 일원을 둘러보는 관광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한 대회 당일에는 비영항에 꾸며진 특설무대 주변에서 새만금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새만금인라인마라톤대회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새만금 방조제 도로 중 일부가 통제됨에 따라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을 수변도로(보조도로)를 통해야 방조제를 통과할 수 있다.

아미도 및 신시도의 시내버스 일부 노선은 대회 시간동안 운행이 중단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코파아메리카 개최국 미국, 코스타리카 4-0 '대파'

2016 코파아메리카 개최국 미국이 두 경기 만에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미국은 8일 오전 9시(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솔더 필드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 경기에서 4-0으로 이겼다.

미국은 지난 4일 개막전에서 콜롬비아에 0-2로 패해 자존심을 구겼으나 이번 승리로 인방 팬들 앞에서 체면을 세웠다. 승점 3점을 수확해 죽음의 조로 꼽히는 A조 조별리그 통과 발판도 마련했다. A조에는 미국,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가 속해있다.

독일 무대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비비 우드(우니온 베를린)가 승리를 이끌었다. 우드는 전반 7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데 이어 전반 42분에는 직접 골망을 흔들며 쾌조의 컨디션 을 뽐냈다.

코스타리카는 수문장 케일러 나바스(레알 마드리드)의 공백이 뼈아팠다. 레알 마드리드 주전 골키퍼로 활약 중인 나바스는 발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코스타리카는 1 무패(승점 1)로 조별리그 통과에 비상등이 켜졌다.

/김민근기자

'첷 베이커' 이해 영화 '본 투 비 블루'

거대한 성공과 그 뒤에 이어지는 끝도 없는 몰락과 재기 다뤄

'첷 베이커'(이선 호크)는 매니저 닉(칼 럽 키스 레니)에게 의존한다. "난 경력 필요 없어요. 연주가 하고 싶어요. 그게 전부라고요!" 이 말 그대로다. 첷 베이커가 버란 건 단 하나, 트럼펫 연주다. 어떤 인간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다. 첷 베이커가 그런 사람이다. 그는 오직 음악을 하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다. 그게 아니라면 첷 베이커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영화 '본 투 비 블루'(감독 로버트 루드)는 그렇게 살다 간 첷 베이커를 이해하는 영화다.

'본 투 비 블루'는 단점이 많다. 영화 속 영화라는 액자구조로 플래시백을 대체하는 이 영화의 형식은 사실상 불필요해 보인다. 히립 나트 데이(감독 토드 헤인즈·2007)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기영화의 형식은 그 자체로 그 인물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뒤브로 감독은 이 작품의 형식에 첷 베이커라는 인간을 덧입히는 데 실패

한다. 후백의 대미가 아름답다는 것 외에는(극중 영화 촬영 장면이 후백) 특기할 게 없다.

또 하나는 첷 베이커의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로 이 영화가 거론하는 그의 열등감 부분이다. '본 투 비 블루'는 첷 베이커가 마일스 데이비스·디지 길레스피 등 이스트 코스트 흑인 엘리트 재즈 뮤지션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다고 반복해서 설명한다. 하지만 이 설명은 뒤브로 감독이 그리려는 첷 베이커의 모습과 모순된다. 영화는 베이커가 '태생적이고 운명적인' 불행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불행을 데이비스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설명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런데도 이 영화가 아름다운 건 역시 첷 베이커를 연기한 이선 호크 덕분이다. '본 투 비 블루'는 첷 베이커의 거대한 성공과 그 뒤에 이어지는 끝도 없는 몰락



이후의 재기를 담은 극적인 드라마가 아니다. 그의 지난한 재기 과정이 이야기 대부분이고, 그 재기의 모습 또한 베이커의 대외적 위상의 재격상이 아닌 그의 내면 변화에 집중돼 있다. 다시 말해 호크는 서사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연기만으로 베이커를 살아있는 인물로 소환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온몸으로 첷 베이커가 된다. 극중 첷 베이커는 재즈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찰리 파커에 대해 이렇게 말

한다. "오직 자신만을 상처입히는 분이었어." 이 말은 결국 베이커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니었을까. 베이커는 1988년 결국 헤로인 중독으로 죽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해 재즈계의 제임스 딘으로 불렸던 그의 뛰어난 외모도 추해져 버렸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마약을 했고, 음악을 했다. 결국 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제인도 떠나 버렸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는지 모른다.

/이성주 기자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 차기 감독 벤투라 선임

'아주리 군단'을 이끌 새 감독으로 지명파제로 벤투라(68) 전 토리노 감독이 선임됐다.

이탈리아축구협회는 7일(현지시간) "벤투라 감독이 이탈리아의 차기 감독을 맡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다. 연봉은 130만 유로(약 17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탈리아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안토니오 콘테(47) 감독이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이달 열리는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를 끝으로 이탈리아의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다음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웰시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벤투라 감독은 유로 2016 이후 콘테 감독으로부터 지휘봉을 건네받아 2018 러시아월드컵에 도전한다.

벤투라 감독은 노련한 감독이다. 지도자 경력만 30년 이상이다. 이탈리아축구협회도 그의 경험을 높이 샀다.

다만 이탈리아 세리에A(3부 리그)를 제외하고는 우승 경력이 없다. 대표팀을 맡는 것도 처음이다.

벤투라 감독은 과거에 우디네세, 나폴리, 칼리리 등 주로 이탈리아 프로팀을 이끌었다. 2011년부터는 토리노를 이끌었으나, 지난 시즌을 끝으로 사령탑에서 물러났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